

문화

자연의 빛깔로 느끼는 '전통의美'

동시대 이상필 교수 제주도 초대전

최근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로 약재에서 염료를 추출하는 만큼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자연의 빛깔에서 우리나라는 오묘한 색상의 천연염색을 선보이고 있는 이상필(동시대 교수)씨가 오는 17일~8월18일까지 제주도 서귀포시 찰나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From where? Where are we going?'을 주제로 천연염색 설치작품을 비롯한 아크릴 작품, 페이퍼메이킹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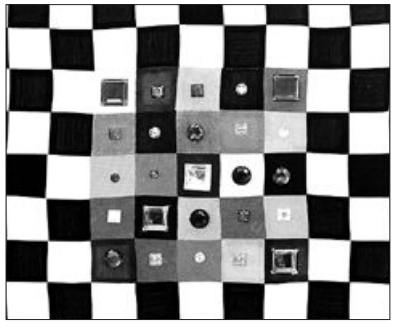
천연염색 작품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풍경을 그리는 부감법(俯瞰法)으로 지상의 건물과 땅 등의 모습을

비단에 물들였다. 천의 조각을 이어붙여 현대적인 감각을 살렸고, 색의 대조와 변화를 통해 한국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게 했다.

미술평론가 정금희(전남대 미술학과 교수)씨는 "정적이고 간결한 색감이 두드러지고, 동양 회화가 지닌 평면의 한계를 극복한 작품이다"면서 "전통 오방색을 이용해 활달한 필치로 표현한 이들 작품에는 담백한 미감이 살아있다"고 평했다.

그는 직접 쪽과 홍화 등을 가루면서 과학적인 천연염색 방법을 찾아내고 다양한 기법을 선보여 미국, 일본 등지에서 호평을 받은 작가이다.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동대학원 출신



'네모'

으로 20여 년 전부터 천연 염색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밀라노, 베이징, 동경 등지에서 매년 개인전을 열었다. 현재 천연염색협회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아시아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문의 064-738-1061.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러시아 마스터에 배우는 아주 특별한 발레 수업

광주시립무용단원들을 대상으로 외국 발레 마스터가 지도를 하는 건 지난 2000년의 알렉산드로 페트로비치와 갈리나 브리토프 씨 이후 9년만이다.

블라디미르 부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일주일간 반갑아 가며 단원들을 가르친다. 15일 연습실에서 만난 이는 블라디미르 세리, 딸으로 흑머리 짙은 세리는 단원들의 동작을 일일이 교정해 주며 지도를 했다.

언어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단원들에게 익숙한 발레용어가 많고 몸짓으로 소통할 수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또 러시아에서 공부했던 단원 김지희씨가 통역을 맡고 있어 도움이 된다.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2시간씩 진행중이다. 오전 10시부터 낮12시까지는 발레의 기본 동작과 테크닉을 배우는 '바센터'(bar center) 과정을 진행하고 오후 1시부터는 '파 드 댕'(2인무)을 배우고 있다.

특히 '파 드 댕' 강의는 단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오랫동안 많은 작품을 지도했던 이들이라 각 작품에서 파트너로 서는 무용수가 지나야할 테크닉과 느낌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발레 '퉁기호레'와 '해적'에 등장하는 2인무로 강의를 진행했다. 블라디미르씨는 단원들을 땀까지 흘리며 나눠 각 팀의 틀린 동작을 지적하고, 시범을 보였다. 팀을 이뤄 춤을 춘 후 곧바로 강사의 평가가 뒤따라 단원들은 바짝 긴장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무엇보다 단원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익숙한 사람들과 늘 연습하다보면 조금은 나태해 질수도 있고,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 것들을 고칠 기회가 없는 게 사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외부인'의 시선으로 자신들을 다시 바라보며 '기분'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쉬운 건 비용 문제 등으로 워크숍 기간



러시아 출신 발레 마스터 엘레나 세리바노바가 14일 광주시립무용단원들에게 발레 동작을 가르치고 있다. (광주시립무용단 제공)

엘레나·블라디미르부부, 광주시립무용단 워크숍 단원들 동작 교정 지도...9년만에 외국 전문가 '과외'

이 1주일에 그친다는 점이다. 무용단측은 기회가 닿는다면 겨울 시즌에 한달 이상 집중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발레 마스터에게 교습을 받는 게 모든 단원들의 꿈이지만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업무가 안나는 게 현실이다.

정정은(28)씨는 "개인 강습을 들으려면 비용이 만만찮은데 유명한 선생님께 지도를 받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좋다"며 "머리 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또 서로가 너무

익숙해 되고 있었던 것을 다시 배울 수 있어 긴장도 되지않고 많은 공부가 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씨는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단원들이 지적당한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 뿌듯하다"며 "프로 무용수는 강사의 설명을 다 이해하고 제대로 흡수하는 게 필요하네. 단원들이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귀를 열고 열심히 따라하는 게 보기 좋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디자인비엔날레 '저고리 국제 공모전'

대상에 운영예시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 '저고리 드로잉 국제공모전'에서 운영예시의 'The past and future-Design2'이 대상작으로 뽑혔다. 이번 공모에는 한국, 일본, 미국, 우즈베키스탄 4개국 작가 93명이 7천점의 작품을 냈다.

대상작 'The past and future-Design

2'는 전체적인 느낌과 움직임을 강조,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은 일본작가 요코 후지카와씨의 'Untitled'등 총 8작품이 선정됐다. 'Untitled'는 저고리의 특징이 살아있는 실루엣에 소매부분은 조각조각 이어붙인 패션감각이 돋보였다.

이밖에 은상에는 ▲금문당 작 '대나



무' ▲관냥 작 'Soul(혼)', 동상에는 ▲조근수 작 'Space age in Chogori' ▲문성중 작 '저고리, 교복에 활을' ▲구송희(이상 한국) 작 '페이퍼킴' ▲새롬 홍 (Saerom Hong-미국) 작 'Untitled' 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작품은 디자인비엔날레 5개의 주제전 중 '웃-웃' 부문에 전시된다. 대상에는 2천달러(한화 256만여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금상에는 1천600달러, 은상(2점)과 동상(4점)에는 각각 1천200달러와 500달러가 지급된다.

한편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오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참여작가들과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고은 시인 23년만에 '만인보' 탈고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 인물 다뤄

지난해 등단 50년을 맞았던 한국 시단의 거목 고은(76) 시인이 민족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시집 '만인보'를 최근 탈고했다.

시인이 1980년 여름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 착상한 '만인보'는 우리 민족의 여러 인간상을 시를 통해 형상화하려는 뜻으로 계획됐고, 1986년 봄 3천500여편을 완결하겠다는 시인의 공언과 함께 1~3권이 세상에 나왔다. '만인보'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얼굴을 그려 "시로 쓴 민족의 효부부", "한국문학사 최대의 연작시"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07년 26권까지 출간된 '만인보'에는 총 3천285편이 실렸고, 시인은 27~30권에 실릴 500여 편의 마지막 회고록을 지난 2일 발표했다. 각각 120여 편씩 구성될 27~30권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쳐 가파른 시대를 살아간 인물들을 주로 다룬다. /연필뉴스

광주시립산수도서관

'청소년 글쓰기' 운영

광주시립산수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문학이 살아 숨 쉬는 청소년 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식주주의 획일적 눈높이에 갇혀있는 청소년들에게 책 선택과 독서방법, 독후감 쓰기 등을 가르쳐, 올바른 글쓰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수필가 박영민(광주문인협회 부회장)씨의 지도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씩 진행된다. 17일까지 중학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문의 산수도서관 미술자료실 062-613-534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and multiple tables listing properties for sale in various districts like Buk-gu, Seo-gu, and Dong-gu.